

코로나 시대 연극으로 인간관계 돌아보다

13~18일 광주국제평화연극제 빛고을시민문화관·문예회관 단막극 '하이엔' 등 12개 공연

지난 2005년 처음 시작된 광주국제평화연극제는 지금까지 '공감', '기억을 깨내 세상에 담다', '넙다·허물다·웃다' 등 다양한 주제로 관객과 만나왔다. 광주국제평화연극제는 '민주 인권 평화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행사 중 하나로 의미가 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13일부터 18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원광연)와 광주시가 준비한 이번 연극제의 주제는 '인(人)과 간(間)'이다. 그리스 해의 초청공연,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팀의 단막극 공연과 함께 국내 초청 공연 등 총 12개의 작품을 선보이며 코로나 19 등 다양한 사회 현상 속에서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

먼저 개막식은 1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며 개막식에 이어 2020년 광주국제평화연극제 단막극제 평화상 수상자인 에이치프로젝트 '하이엔'을 선보인다. 작품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은 외국인 신부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며 신종플루와 코로나 19로 변해버린 사회 현상을 보여준다.

14일(오후 5시30분-6시30분-7시30분) 펼쳐지는 단막극 경연은 빛고을시민문화관 계단부터 아트스페이스소극장까지 관객이 공연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투어형식으로 진행된다. 각자 지닌 절벽을 묵묵히 오르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극단 시민의 '히스토리(He story)'를 시작으로 한 남자가 내려놓은 밧줄을 어떤 여자가 들어올리면 시작되는 애니모어스토리의 '삭전(索戰)', 여성의 시선으로 새로운 세상을 찾는 극단 습다의 '오피리어 연극연습' 등이 무대에 오른다. 또 대학교 옥상에서 대치하는 연인 사이에 울리는 재난문자와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 집단 행성의 '지금, 여기', '하녀들'을 바탕으로 수 저계급을 다룬 박상하프로젝트의 '운' 등도 관객과 만난다. 이밖에 극단 꿈의동지의 '정신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원이자랑의 '천막은 비를 가리지 못하고' 등도 선보인다. 단막극 경연은 1회당 10명만 관람할 수 있다.

15~16일에는 공식초청작을 상영한다. 15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극단 완자무늬가 다채하고 인간적인 스토리를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낸 '지대방'을 무대에 올리며 16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극장에서는 칠레의 군사 독재정권 시절 수사기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한 소녀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극단 Y의 '슈



제17회 광주국제평화연극제가 13일부터 18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연극 '하이엔'의 한 장면.

베르트 험악 4중주'가 펼쳐진다.

17일에는 해외초청작 '이카로스의 꿈'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선보이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그리스 Annamma Theatre Comany의 작품으로 태양 가까이 날아오르다 날개를 붙인 밀랍이 녹아 바다로 떨어져 죽은 신화 속 인물 '이카로스'를 모티브로 했다. 3000만에 이카리아 섬에 다시 나타난 이카로스의 이야기를 연극, 뮤

지컬, 무용극 요소를 결합해 선보인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배우와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된다.

공연 마지막날인 18일(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폐막식에서는 단막극제 시상식이 진행되며, 극단 연우랑과 문화예술공방 바람꽃이 '점순할매와 미야트'를 공연한다. 문의 062-523-729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한희원 초청 9일 빛고을렉처콘서트

한희원(사진) 작가의 그림 이야기와 연극인 이당금·오새희 씨의 몸짓이 더해진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빛고을렉처콘서트가 이번에는 한희원 작가를 초청, '시와 음악으로 만나는 한희원의 그림'에 대해 강의한다.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한 작가는 2019년 새로운 세계를 찾아 떠나간 예술가의 여정,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만난 자유와 고독 등 여행을 통해 느꼈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그의 이야기를 연극인 이당금·오새희의 몸짓으로 표현해 여행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시인 및 한희원미술관 관장으로 활동 중인 한 작가는 2019년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 또한 2021년 독일 뮌헨 두루두루 갤러리 초대전 등 개인전 50회 이상 개최와 대중미술상, 2021 광주시민대상 등 수상경력이 있다. 전화(062-670-7926)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한편 다음 '빛고을 렉처콘서트'는 10월 14일 문형식 DJ를 초청 '영화는 끝나도 음악은 남아있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죽형 조태일 삶과 시 세계 기리다

11일 곡성서 문학축전 열려 조태일문학관서 추모 시화전

죽형(竹兄) 조태일 시인(1941~1999·사진)의 삶과 시 세계를 기리는 '2021 죽형 조태일 문학축전'이 오는 11일 오후 3시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문학축전은 곡성군(군수 유근기)과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무) 주최로 '우리의 하늘, 우리의 땅'을 주제로 열린다.

행사는 조 시인의 대표시 '국토서시'를 한결속 시인의 낭송으로 시작되며 이효복 시인은 '조태일 시인'이라는 추모시로 고인을 기린다.

이어 강경아 시인, 최기중 시인도 시낭송 무대에 오른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명정 휘호를 쓰기도 한 죽형 송홍범 서예가는 조 시인의 대표시 '국토서시'를 거필 퍼포먼스로 보여준다. 문단 후배인 이승철 시인은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돼 생전 조태일 시인과의 인연과 에피소드를 들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22주기 추모 시화전은 조태일시문학기념관 일대에서 열린다. 고인의 대표시와 추모시 외에도 이대훈, 손택수 등 조태일문학상 수상시인



작품을 비롯해 지열하게 시대정신을 담아냈던 조 시인의 시 정신을 잇는 전국 시인들의 시 50여 편이 상설 전시된다.

곡성태안사에서 출생한 조태일 시인은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시집 '아침선박', '식칼론', '국토', '자유가 시인더러' 등을 발간했으며 1980년 신군부가 계엄령 전국 확대에 앞서 감금한 예비 검속자에 포함돼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생전의 시인은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제자 문인들을 양성했으며 평생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앞장선 대표적인 민족·민중 시인이다.

한편 제3회 조태일문학상 수상자로 시집 '어린 왕자로부터 새드 무비'를 펴낸 박남준 시인이 선정됐다. 박 시인은 1984년 시전문지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지금까지 시집 '종족자' '그 아저씨네 간이 휴게실 아래' '적막' '다만 흘러가는 것들을 듣는다'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꿈꾸는 예술'은 오는 8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오페라 'La Traviata'를 그림자극으로 선보인다.

그림자극으로 만나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림자극으로 관객과 만난다.

'꿈꾸는 예술' (대표 정찬경)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그림자극 오페라 'La Traviata'를 선보인다.

꿈꾸는 예술은 '쉽고 즐겁게 공연함으로써 시민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클래식 생활문화로 만들자'는 창단 취지에 맞게 '라 트라비아타'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고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연극, 미술, 영상 등을 결합해 그림자극 오페라로 재창작했다.

총 3막으로 구성된 공연 1막에서는 '축배의 노래', '빛나고 행복했던 어느날', '아 그이인가' 등을 들려주며 2막은 '그녀 없이는 내 마음에 행복 없네', '천사 같은 딸이 있다고', '플로렌자 내 고향으로' 등으로 꾸며진다. 마지막 3막에서는 '지난날이여 안녕', '사랑하는 이여 파리를 떠나서', '피날레' 등을 선보인다.

공연은 정찬경이 연출하고 김지운이 기획했으며 비올레타 역에 소프라노 이환희·남현주·신은선·김예셀, 알프레도 역에 테너 김백호, 제르몽역에 바리톤 이하석 등이 출연한다.

무료 관람. 문의 010-6757-666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10월 상영 '코로나 엔딩 송' 시민 창작 프로젝트 눈길

'시민 창작 프로젝트'는 미디어아트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 미디어아트 콘텐츠 개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함께 미디어아티스트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시민이 직접 미디어아트 작가로 변신해 그럴싸한 작품을 만들어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번 창의랩에 참여하는 프로젝트팀 구성은 '전문', '예비', '시민' 세 부분의 프로젝트로 각각 콘텐츠 연구, 개발에 나섰다. 그 가운데 시민들이 작가로 참여해 만들어낸 결과물이 눈길을 끈다.

'시민창작프로젝트' 팀이 만든 작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스페이스 5G네' 공간에서 상영될 '코로나 엔딩 송'. 미디어아트에 관심이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시민 9명이 변형된 교수(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가 운영 책임을 맡은 프로젝트에 참여해 '애니메이션 기반 창작' (여진구 감독), '스토리텔링 기법' (김민화 교수) 등의 과정을 통해 공동 창작한 작품이다.

'시민창작프로젝트'팀의 '코로나 엔딩 송'은 3분30초짜리 영상으로, 영상에 들어가는 음악은 참여한 시민 9명이 직접 작사·작곡했다. 영상 또한 시민들이 직접 '지금 내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주제에 맞춰 제작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